

“드르륵” 헬기사격 소리 결국 벌컨포였나

시민이 벌컨포 탄피 37년간 간직...5·18재단에 기증

당시 항공대대장 “광주천 따라 사격하라는 지시 받았다”

정수만 회장 “헬기 3대 투입 벌컨포 탄환 1500발 지급 확인”

5·18 당시 계엄군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벌컨포 탄피 3점이 37년 만에 세상에 드러나면서 5·18 진실 규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에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들이 벌컨포 탄환 1500발을 지급받았고 계엄군 상부로부터 1980년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수차례 벌컨포 사격 지시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난다. 관련 물증으로 유력시되는 탄피가 등장하면서다.

이 같은 이유로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육군 항공대 관계자의 검찰 진술, 계엄군에 지급됐던 탄환, 헬기 기종조사 목적 시민들의 증언이 다시 주목된다.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됐던 육군 1항공여단 31항공단 103항공대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당시 39세)씨는 지난 1995년 5월15일 서울지방검찰청(5·18 특별수사팀) 조사에서 “전교사 작전통제를 받았고 김순현 장군(전교사 발전본부장)으로부터 5월 22일 광주전을 따라 사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조사에서 “시민들을 직접 겨냥하지 않아도 벌컨포의 위력을 감안하면 수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돼 서면으로 명령 하달을 요구했고 결국 사격은 하지 않았다”며 헬기 기종조사 의혹을 부인했다.

5·18 당시 3공수여단 13대대장으로 광주에 투입됐던 변길남(당시 55세)씨도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황영시 육군참모 차장이 전교사 김기석 부사령관에게 무장헬기를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하라고 했다는 명



M61 벌컨포

령을 내린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검사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다”며 부인했다.

고(故) 조비오 신부 등 광주시민들은 5·18민중항쟁 직후부터 “계엄군 헬기가 광주 금남로 등 상공에 떠다니며 낮에도 불을 뿜으며 드르륵, 드르륵 사격을 가했다”는 증언을 언론과 천주교 측에 쏟아냈지만 군당국은 “증거가 없지 않느냐”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올 초 전일빌딩 건물 10층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탄흔이 계엄군 헬기 사격

흔적으로 유력해보인다는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나온데다 최근 파괴력이 엄청난 벌컨포 탄피마저 등장하면서 도청앞 집단발포 명령자 규명과 헬기 기종조사 의혹 등 5·18 진상 규명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수만 전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5·18 당시 M61 벌컨포를 쏠 수 있는 헬기는 전군에 총 7대로 당시로선 군이 보유한 최신식 살상 무기를 탑재한 헬기”라며 “이 중 3대의 헬기가 광주에 투입됐고 벌컨포 탄환 1500발이 지급된 사실, 벌컨포 사격명령 하달 사실도 이미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탄피 사진 감정을 통해 최근 기증받은 탄피가 벌컨포 탄피로 사실상 확인됐고 5·18 관련성도 매우 커보인다”면서 “M61 벌컨포 헬기사격이 공식적으로 확인된다면 전두환 등 당시 신군부 핵심세력들을 다시한번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미완의 진실 찾는다” 5·18진실규명 자문위 첫 회의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규명 로드맵과 추진방향 등을 자문하게 될 5·18 진실규명 자문위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이날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제1차 5·18 진실규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자문위에는 5·18 3단체, 5·18기념재단, 5·18 연구원, 변호사,

교수, 관련 전문가 등 23명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이날 초 광주시는 5·18 진실규명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자문위는 자위단 활동 시작과 함께 5·18 진실규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에 대한 집단발포, 무장헬기 동원 여부와 공중사격 원인, 압매장 여부 등 5·18의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는 것이

목표다.

자문위원들은 “5월 단체, 관련 기관과 손잡고 헬기 사격 등 집단발포 명령자 색출을 위한 자료 확보 등 5·18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자문위원들은 또 5월 단체 등 5·18 당사자와 전문가의 힘을 모아 국가 차원의 진상보고서가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자위단 관계자는 “5·18 진실규명 작업을 모든 대선 후보의 공약과제로 삼아 새 정부에서 반드시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보고서는 1988년 국회 청문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재판에서도 5·18당시 집단발포 명령자를 확정·처벌하지 않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육교 추락 고교생

차량에 치여 중태

육교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등학생이 달리던 차량에 치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4일 밤 9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육교(일명 상무지구 구름다리) 아래 도로에서 A(18)군이 B(57)씨가 몰던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A군이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다.

경찰은 높이 8m가량 육교에서 A군이 투신했다는 목격자 진술과 옷에서 발견된 메모지 등을 토대로 A군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보고 가족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랜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종적을 가하기 전부터 A군이 도로에 쓰러져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축산시설 방역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맞아 15일 광주 북구청 경제정책과 농축산유통팀 긴급방역반원들이 양산동의 한 축산관련시설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주택가·농촌까지 파고 든 불법 게임장

전남경찰, 목포·순천·나주서 6곳 21명 적발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장이 주택가나 농촌에까지 파고들어 농민을 울리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1일부터 45일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6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게임장은 목포 3곳, 순천 2곳, 나주 1곳으로 주택가·농촌마을에서도 적발됐다.

전남경찰은 게임장 운영자 등 21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불법 게임기 400여대와 현금 230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나주시 남평읍의 한 게임장에서 ‘불타는 불세’라는 사행성 포커 게임기를 가동하며 이용자들에게 환전수수료 10%를 받고 불법 환전을 해준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박모(49)씨와 환전상 박모(45)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50대와 현금 800여만원을 압수했다.

지난달 18일에는 목포시 산정동의 한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을 적발, 업주 김모(40)씨 등 2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40대와 현금 170여만원을 압수했다. 김씨 등은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심야에 게임장 내부 화장실, 흡연실에서만 은밀히 환전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게임장의 실제 업주와 여죄, 추가 부당 수익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갈수록 은밀하게 진화하는 불법 게임장 운영에 대비해 112신고 데이테베이스를 구축해 사행성 게임장 분포도·시간대 등을 분석,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게임기 위·변조, 배당 확률 조작 등에 대한 현장 단속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식품가공협회장이 수입 팔 불법유통

낮은 관세로 들여온 21억여치 무자격 도매상에 팔아

낮은 관세로 수입한 식품가공용 팔을 무자격 소매상에게 판매해 부당 이익을 챙긴 모 식품가공협회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낮은 관세의 국영무역용을 통해 수입한 가공용 팔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양곡관리법 위반)로 모 식품가공협회장 A(63)씨와 전남지회 소속 여직원 B(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46차례에 걸쳐 21억5000만원 가량의 식품가공용 팔을 협회 회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소매업자에게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협회 회원인 가공업자들이 신청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A·

로부터 저율 관세가 적용된 팔을 사들인 뒤 가공 능력이 없는 소매상에게 팔아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협회 정관상 회계장부 보관기관이 5년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대의원 의결 형식을 빌려 수년 동안 회계장부를 파기하며 범행을 은폐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두부 등 국민 기초식품의 가격·수급 조절을 위해 원료인 콩이나 팥을 정부관리 양곡으로 지정해 낮은 관세를 부과해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농가 보호 차원에서 판매 대상과 수입량은 제한하고 있다. 수입 팥을 가공하지 않고 파는 소매상은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공매 등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소변 튀었다’ 시비 끝 서로 주먹질한 2명 경찰서형



○…술을 마시고 노상방뇨하던 20대 남성과 길을 지나던 생면부지 20대 남성이 “소변이 옷에 튀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주먹다짐을 벌여 경찰서형.

○…15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25)씨와 B(23)씨는 이날 새벽 1시15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의 한 건물 앞 길에서 서로 욕설하고 고함을 치며 얼굴

과 몸등을 서로 때린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A씨가 길에서 소변을 보던 중 옆을 지나던 B씨 신발에 약간 튀어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로 주먹다짐을 벌였으며 코를 다친 A씨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아무것도 아니는데 왜 때문에 일이 커진 것 같다”고 설명.

/김형호기자 khh@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 ~ 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신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2. 18(토) ~ 21(화)
- 전형일 : 2017. 2. 22(수) 오후 2시



광 신 대 학 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막지소로 36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평신대학
광 신 대 학 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

대학원 신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2. 13(월) ~ 20(월)
-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 22(수) 오전 10시~18시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7. 2. 22(수) 오전 10시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
		음악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 (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명 (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2. 13(월) ~ 20(월)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7. 2. 22(수) 오전 10시